

보도시점 2024. 1. 18.(목) 10:00 배포 2024. 1. 17.(수) 15: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호남지역 기업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 청취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현장 방문과 호남지역 기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
- 향후 기후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생산설비 전환 등에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월 18일 성일하이텍(주)(군산 소재 이차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중소기업)에서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 및 호남지역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현장 방문 및 기업 간담회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금융지원 방안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일시·장소) '24.1.18(목) 10:00, 성일하이텍(주)
- (참석자) 금융위원장(주재), 호남지역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기업 7개사 대표\*, 산업은행 회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기업은행 은행장 등

\* 성일하이텍(주)(폐이차전지 재활용), 탑솔라(주)(태양광 발전소 설치), 비나텍(주)(수소연료전지 소재), 다스코(주)(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 (주)휴먼컴퍼지트(풍력 발전기용 부품제조), 창신화학(주)(산업가스 제조), 썬시멘트(주)(저탄소 공정전환)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고금리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지역기업의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최근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설비교체와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건의하였다.

※ 간담회시 언급된 주요 정책지원 요청사항

- ① 신재생에너지 사업 특성상 적절한 입지조건과 더불어 대규모 시설투자 필수적  
→ 신재생에너지 업종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 세제지원 등 필요
- ② 기존 공정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생산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  
→ 저탄소 공정 시설 투자 및 시설 교체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
- ③ 산업 호황에도 현장의 생산인력 및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  
→ 청년 유인 지원정책 등을 통해 지방기업도 우수한 인력 채용의 기회 확대 필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은 기후환경 변화에 얼마나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언급하며 탄소중립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 대규모의 자금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향후 금융권의 탄소중립 지원방향으로는 ❶은행권과 정부의 공동 펀드 조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❷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성장을 돕는 한편, ❸기업이 저탄소 생산설비를 조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힘쓰고 있는 기업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 말씀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남동우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안기빈 (02-2100-2864)